

한미약품, 명예·신용손상 지속에 임종윤·임종훈 사장 해임 단행

모친·여동생 등과 경영권 다툼
OCI그룹과 통합추진 반대 행보
“글로벌 미래지향적 도전 위한 결정”

한미약품그룹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임종훈 사장을 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임종윤·임종훈 두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으며,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두 사장을 해임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종윤 사장이 오랜 기간 개인사업 및 타 회사 디엑스앤비엑스의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 업무에 소홀히 하고 지속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도 해임 사유라고 한미약품 측은 밝혔다.

현재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모친 송영숙 회장, 여동생 임주현 사장 등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이 각각 제안한 신규 이사 후보들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고돼 왔다.

무엇보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행보를 보였다.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이자, 개인주주로는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지분 12.15%)이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28.42%)을 공개 지지해 상황이 급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최종 향방은 7.6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의결권 자문사 5곳 가운데 3곳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손을 들어줬고, 1곳만이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에 찬성했다. 나머지 한곳은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한미사이언스 이사진 측의 안전에 모두 찬성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주주 제안에는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원활한 이사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반대에 대해서는 “주주 제안자가 오너 일가인 경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주주의 이해관

계와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이사 후보가 선임되면 이사회는 교착 상태에 빠져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회사 및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클래스루이스도 한미사이언스 측에 찬성,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국내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KCGS)은 주주제안측 5명 중 4명 찬성, 회사측 6명 선임안에 반대는 아닌 ‘불행사’를 권고했다.

한편 이날 김나영 신제품개발본부장, 박명희 국내사업본부장, 신성재 경영관리본부장, 최인영 연구개발센터장 등 한미약품 본부장 4명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 이동환 제이브이엔 대표, 박종현 에르무루스 대표 등 한미그룹 계열사 대표 5명(한미그룹 책임리더)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 한미그룹 책임리더는 송영숙 회장을 임성기 선대 회장의 뜻을 실현할 최적임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세대 한미의 리더’로 임주현 사장을 추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한미그룹이 하나 되어 글로벌 한미를 향한 미래 지향적 도전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안재현 SK케미칼 대표(오른쪽 첫 번째), 김윤호 Pharma사업대표(왼쪽 두 번째) 등 SK케미칼 구성원들이 조인스정 누적 매출 6000억원 달성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SK케미칼

SK케미칼 ‘조인스정’, 누적 매출 6000억

천연물·골관절염 분야 경쟁력 입증
SK케미칼이 천연물과 골관절염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SK케미칼은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누적 매출이 6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한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의 누적 매출이 6000억원을 넘긴 경우는 조인스정이 최초다.

조인스정은 지난 2019년 4000억원, 2022년 5000억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한 후 2년 만에 10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출시 후 22년 동안 판매된 조인스 수량은 약 16억정도로, 한 해 평균 7000만정 이상이 처방된 셈이다.

IMS 데이터에 따르면 조인스정은 지효성 증상 개선제 계열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생약 성분 치료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효성 증상 개선제는 관절염 치료에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약물로 해당 시장 규모는 약 1400억원에 이른다.

조인스정은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가진 3가지 생약 율령선, 팔루근, 하고초를 주성분으로 하는 골관절염치료제다. SK케미칼은 천연물을 주성분으로 개발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염제와 동등한 통증 감소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점이 조인스정 매출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임상시험, 연구 등을 통해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속쓰림 등 주요 위장관계 부작용은 유의하게 낮추는 결과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조인스정은 앞서 출시 당시에도 시사주간지 ‘타임’ 2002년 6월 10일자 표지 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효의 검증을 통해 서양 의학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GC셀, 신임 연구소장에 ‘원성용 박사’ 선임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가 영입

GC셀(지씨셀)이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연구개발 동력 확보에 나섰다.

GC셀(지씨셀)은 원성용 박사(사진)를 세포치료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성용 신임 연구소장은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미생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의대에서는 미생물학·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라 호야에 있는 스크립스연구소에서 면역학·유전학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국내에서는 ▲CJ 제일제당 제약연구소 생물학연구소장 ▲GC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 면역세포팀·연구기획팀장 ▲GC녹십자홀딩스 투자팀장 ▲아티바바이오테라퓨틱스 부사장 ▲HK이노엔 바이오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원 연구소장은 지씨셀의 파이프라인 및 면역세포치료제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지씨셀은 오는 27일 열리는 지씨셀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성용 연구소장의 신임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이청하 기자

‘CT-P39’ 유럽 품목허가 최종승인 기대감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



유럽약품사용자문족, 승인 권고 의견 EU 첫번째 오말리주맙 허가 될 수도

셀트리온이 신규 품목 출시에 따른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의 바이오시밀러 ‘CT-P39’의 전체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 승

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졸레어는 노바티스가 개발한 알레르기성 천식, 비동염을 동반한 만성비부비동염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되는 블록버스터 항체 바이오의약품이다.

이번 품목허가 승인을 권고한 유럽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의약품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논의해 유럽 의약품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무엇보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유럽연합(EU)의 ‘CT-P39’ 품목허가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CT-P39의 유럽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CT-P39는 유럽에서 졸레어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받는 첫 번째 제품이 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오말리주맙 시장 진입 속도 경쟁에서 선수를 차지해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일 미국에서도 CT-P39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해 후발 업체들과 격차를 벌려 가고 있다.

/이청하 기자

“건조하고 가려운 두피, 샴푸로 관리하세요”

블랙포레, 탈모증상완화 샴푸 출시

생활부터 기업 애경산업은 탈모관리 전문 헤어브랜드 ‘블랙포레’가 ‘리페어 민감두피 진정 탈모증상완화 샴푸’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블랙포레 리페어 민감두피 진정 탈모증상완화 샴푸는 시카 성분과 세라마이드 성분을 더한 ‘시카&세라 리페어 콤플렉스’를 함유해 건조하고 가려

운 두피를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에는 샴푸 제형이 조밀한 미세 거품으로 바뀌는 ‘고밀도 미세 거품 발포 기술’도 적용돼 강력한 세정력과 가려움 개선 기능을 갖췄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두피 피지 개선 및 두피 가려움 개선 효과를 확인받았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화장품 보고를 완료한 탈



블랙포레 리페어 민감두피 진정 탈모증상완화 샴푸. /애경산업

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텍스판테놀 등의 성분이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남성용 톤업 선크림 출시

프리메라 ‘맨 인 더 핑크’서 선택

아모레퍼시픽은 프리메라가 남성용 선크림 ‘리페어링 세라캡슐 UV 프로텍터 토닝 이펙터’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프리메라 남성 제품군 ‘맨 인 더 핑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톤업 선크림이다.

프리메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부 노화의 핵심 요인인 자외선은 강력

하게 차단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93%까지 회복시키는 효과를 갖췄다.

또 프리메라는 ‘내추럴 스킨 톤업 피그먼트’ 색소를 적용해 본연의 피부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바이올렛 색상을 구현했다고 설명한다. 남성 피부에 맞춘 톤업이 가능하고 모공, 트러블 흔적까지 보완한다.

이와 함께 수분감 있는 제형이 건조해질 수 있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